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경제,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0.3%
- Bloomberg: 4월 미 기업 일자리 증가, 7월 이래 최저...6만 2천 개
- Bloomberg: 미 소비자 지출은 크게 상승했다
- Bloomberg: 트럼프, 연준 의장의 금리 정책 또 비판

#### [미국 금융]

- YahooFinance: 미국의 인수합병 둔화...글로벌 M&A는 활발
- Bloomberg: 미 증시 하락세...경제 성장·일자리 둔화가 압박

#### [뉴욕시]

- Bloomberg: 뉴욕커, 마이애미·팜비치로 이탈...소득 92억 달러 유출

#### [물류]

- Bloomberg: 트럼프의 입항료, 중국 선적과 글로벌 교역에 미치는 영향

#### [트럼프 관세 여파]

- YahooFinance: 중국, 의약품·반도체 등 미국산 일부 품목에 관세 유예
- WSJ: 관세 타격에 중국 수출 급감...제조업도 위축세

#### [주택]

- CNBC: 경제 불확실성으로 주택 구매자 모기지 수요 하락

#### [오일]

- WSJ: 무역전쟁 여파로 유가 추가 하락, 시장 심리 위축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TechCrunch: 구글, 개인화된 언어 학습 AI 도구 출시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Economy Contracts for First Time Since 2022 on Imports Surge**

#### **미 경제,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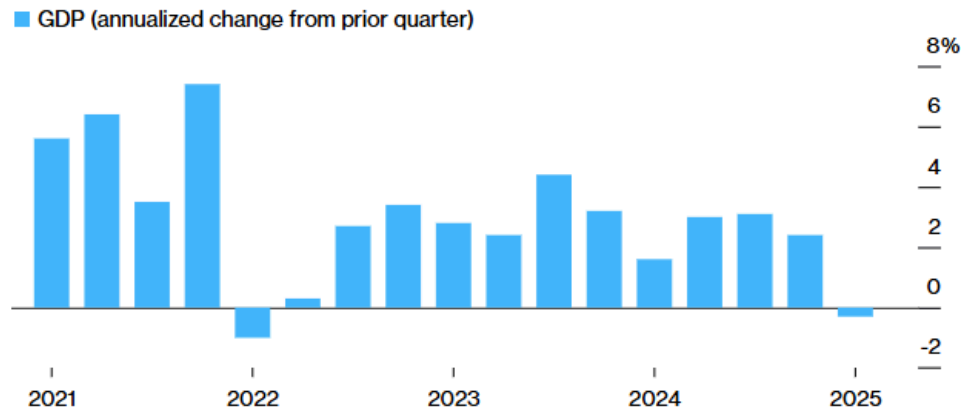
-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여파가 미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세 정책 발표 이전에 상품 수입이 급증하고, 소비자들의 지출 둔화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 수요일 발표된 연방정부의 경제 자료(잠정치)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미국 1분기 경제성장률은 연율 기준 -0.3%로, 지난 2년간 평균 3% 성장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이번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관세 시행 전 물량 확보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순수출이 GDP의 약 5%를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방 지출 감소도 GDP에 부담을 준 요인으로 분석된다.

### US Economy Contracts For the First Time Since 2022

A surge in imports weighed on GDP as firms sought to front-run tariffs



Sou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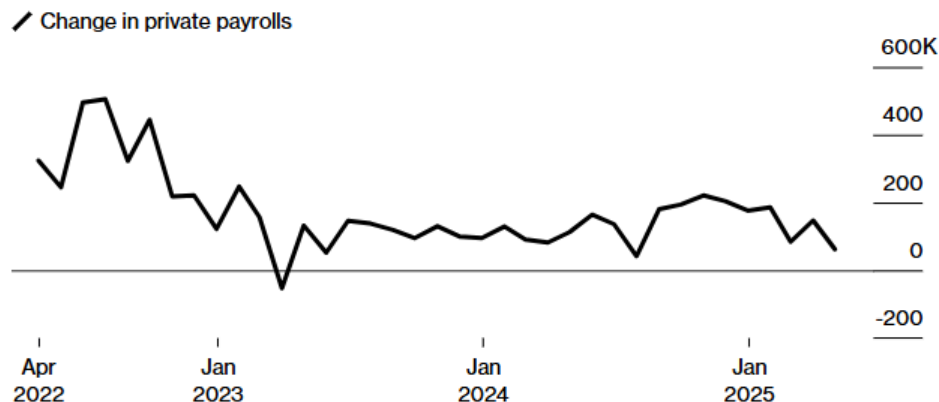
### Bloomberg: US Firms Add 62,000 Jobs, Smallest Gain Since July in ADP Data

4월 미 기업 일자리 증가, 7월 이래 최저...6만 2천 개

- 미국 기업들의 일자리 증가가 지난 9개월 만에 가장 둔화됐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채용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 수요일 발표된 ADP 리서치에 따르면, 4월 민간 기업들은 6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새로 채용했으며, 이는 블룸버그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수치다.
- 교육, 헬스케어, 정보기술, 전문직 및 비즈니스 서비스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고용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US Companies Add 62,000 Jobs in April

Private-sector hiring slowed to lowest pace in nine months



Source: ADP Research

## Bloomberg 기사

## Bloomberg: US Consumer Spending Jumps While Key Inflation Gauge Slows 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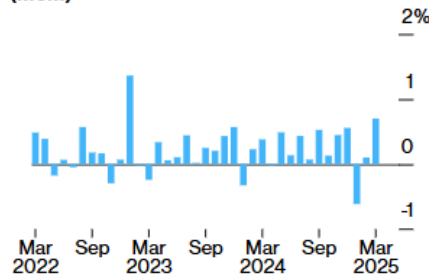
### 미 소비자 지출은 크게 상승했다

- 3월 미국의 소비자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 오늘(수요일) 연방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3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소비자 지출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초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으로, 미국 가계가 관세 시행 이전에 소비를 앞당겨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이날 발표된 미국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PCE)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전월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었다. PCE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다.
- 근원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 역시 거의 변동 없이, 5년 만에 가장 완만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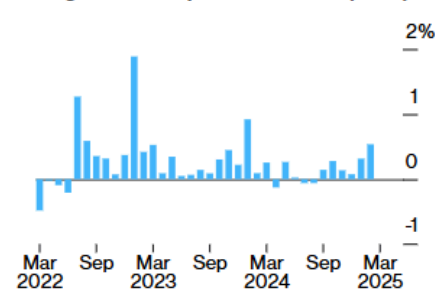
## US Consumer Spending and Incomes Post Solid Gains

Healthy demand in March was accompanied by tamer inf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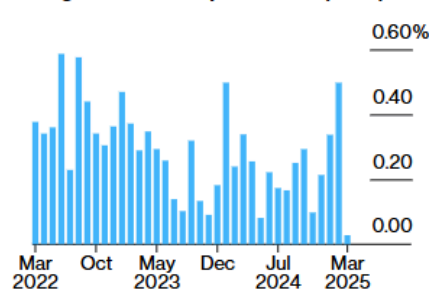
Change in inflation-adjusted spending (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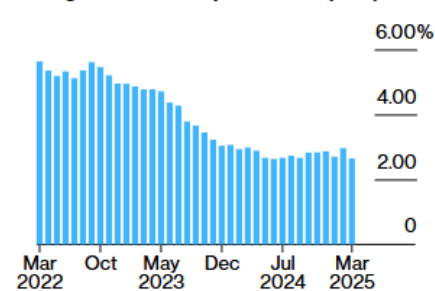
Change in real disposable income (MoM)



Change in core PCE price index (MoM)



Change in core PCE price index (YoY)



Sou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Bloomberg 기사

## Bloomberg: Trump Bashes Powell, Touts Tariffs at Rally Marking 100 Days

### 트럼프, 연준 의장의 금리 정책 또 비판

- 트럼프는 “연방준비제도(Fed)의 파월 의장이 금리와 관련한 일처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신이 파월 의장보다 금리 상황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 그는 어제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낮아졌고, 금리도 하락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 또한, 자신의 관세 정책을 포함한 경제 정책을 옹호하며 “관세는 경제 성장과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한편,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loomberg 기사

## [미국 금융]

**YahooFinance: M&A is slowing in US but accelerating worldwide during new Trump era****미국의 인수합병 둔화...글로벌 M&A는 활발**

- 트럼프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국 내 인수합병(M&A) 활동은 둔화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활발해지고 있다.
- 달러 기준으로 보면, 올해 4월 28일까지 미국에서 발표된 인수합병 규모는 5,86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감소했다. 이는 최근 2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Dealogic은 밝혔다. 특히 4월에는 트럼프의 관세 발표로 경제 불확실성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M&A 활동이 위축됐다.
- 반면, 미국 외 지역에서 발표된 인수합병은 같은 기간 동안 전년 대비 43% 증가한 7,200억 달러에 달했다.

YahooFinance 기사

**Bloomberg: S&P 500 Futures Fall 1.5% After Weak Economic Data: Markets Wrap****미 증시 하락세...경제 성장·일자리 둔화가 압박**

- 트럼프의 관세 조치로 인한 경제 리스크가 월가에 부담을 주면서, 최근 회복세를 보이던 증시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S&P 500 지수는 현재 약 2% 가까이 하락 중이다.
-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공격적인 무역 정책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 둔화, 고용 감소, 인플레이션 고착화 등의 지표가 지난 한 달간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시장의 불안 심리를 나타내는 CBOE 변동성 지수(VIX)도 크게 상승했다.
-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신중하게 경고하고 있다.

- 현재 S&P 500 지수는 1.5% 하락한 5,477.7을 기록하고 있으며, 나스닥은 1.76% 하락한 17,154에서 거래 중이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5% 하락한 4.18%를 나타내고 있다.

Bloomberg 기사

**[뉴욕시]****Bloomberg: NYC Lost \$9 Billion of Income to Miami, Palm Beach in Five Years****뉴욕, 마이애미·팜비치로 이탈...소득 92억 달러 유출**

- 2022년까지 지난 5년 동안 약 3만 명의 뉴욕인들이 플로리다주의 팜비치 및 마이애미데이드(Miami-Dade) 카운티 등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이주로 인해 총 92억 달러에 달하는 소득이 뉴욕에서 빠져나가 해당 지역으로 유입됐다.
- 구체적으로, 연소득 19만 달러 이상인 약 2만 명이 이 기간 동안 뉴욕시에서 팜비치로 이주했으며, 연소득 26만 6천 달러 이상인 약 2만 6천 명이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로 옮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Bloomberg 기사

**[물류]****Bloomberg: What Trump's New Port Fees Mean for Chinese Shipping and World Trade****트럼프의 입항료, 중국 선적과 글로벌 교역에 미치는 영향**

- 트럼프가 추진 중인 새로운 입항료 정책은 중국 선적과 글로벌 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중국 운영업자나 소유자가 보유한 선박에 대해 오는 10월 14일부터 순톤당 50달러의 입항료를 부과하고, 2028년 4월까지 순톤당 140달러로 인상하는 것이다.
- 또한, 중국산 선박의 경우 10월부터는 순톤당 18달러 또는 하역 시 컨테이너당 120달러 중 더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단, 이 범주에는 일부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이 두 가지 입항료는 연간 최대 5회까지만 부과되며, 한 항해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여러 미 항만에 기항하더라도 추가로 중복 부과되지는 않는다.
- 한편, 현재 전 세계 선박의 약 15%가 중국 운영업자나 소유자에 의해 운항되고 있다.

Charges on Chinese Ships

Fees set to come into force later this year and ramp up

	\$/net ton fee for having a Chinese vessel operator or owner	\$/net ton fee on Chinese-built vessels	\$/container fee on Chinese-built vessels
April 17, 2025	\$0	\$0	\$0
October 14, 2025	\$50	\$18	\$120
April 17, 2026	\$80	\$23	\$153
April 17, 2027	\$110	\$28	\$195
April 17, 2028	\$140	\$33	\$250

Source: USTR document

Measures Will Have Limited Impact

US port calls last year by internationally trading ships

	Non-US Built Car Carriers	Chinese Operated/ Owned Ships~	Chinese Built Ships	Total Port Calls Within Scope Of Measures	Total US Port Calls By Intl Trading* Ships	% US Port Calls 'Impacted'
Containership	0	984	217	1,201	18,014	7%
Bulkcarrier	0	1,439	35	1,474	15,588	9%
Crude Tanker	0	177	69	246	4,230	6%
Products Tanker	0	266	34	300	9,741	3%
Chem. & Spec. Tanker	0	192	0	192	7,096	3%
LPG	0	216	0	216	3,053	7%
LNG	0	0	0	0	1,436	0%^
Car Carrier	1,984	0	0	1,984	4,322	46%
Cruise	0	0	0	0	9,131	0%
Ferry	0	0	0	0	1,507	0%
Others	0	77	37	114	11,711	1%
Total	1,984	3,351	392	5,725	85,829	7%

Source: Clarkson Research

Note: Figures take into account that additional calls to US ports -- during the same voyage to the US -- are not subject to USTR fees; \*Excludes any ships that are both US flagged and US owned; ^0% shown for LNG as no port fees will apply; ~Owned or operated by an entity based/with a HQ or where the underlying interest in the company is recorded as in mainland China or Hong Kong

Bloomberg 기사

[트럼프 관세 여파]

YahooFinance: China eases tariffs on select US goods as Trump says

Beijing will 'eat' the costs

중국, 의약품·반도체 등 미국산 일부 품목에 관세 유예

-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최대 1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해 조용히 관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적으로는

양보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완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특히 로이터 통신은, 중국 정부가 의약품과 반도체 등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산업에 대해 이 같은 관세 면제 사실을 개별 기업에 조용히 통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현재 중국은 미국산 에탄(ethane)에 대해서도 관세를 유예한 상태이며, 관세 유예 품목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ahooFinance 기사

## WSJ: China's Export Orders Plunge, Hit by Trump's Trade War

### 관세 타격에 중국 수출 급감...제조업도 위축세

- 트럼프의 관세 조치 여파로 중국의 제조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4월에는 수출 주문이 크게 줄며,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로 하락했다. 이는 기준선인 50을 밑도는 수치로, 제조업 활동이 위축 국면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3월 PMI는 50.5였다. 신규 수출 주문도 지난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이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과 대미 협상 요구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지는 않고 있다.

WSJ 기사

## [주택]

## CNBC: Homebuyer mortgage demand drops further, as economic uncertainty roils the housing market

### 경제 불확실성으로 주택 구매자 모기지 수요 하락

- 미국 주택시장에서 경제 불확실성으로 주택 구매자들의 모기지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 이자율은 6.90%에서 6.89%로 소폭 하락했으나, 주택 구매를 위한 모기지 신청은 지난주 대비 4% 감소했다.
- 채용자 신청도 주간 4% 감소했지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 모기지 신청 활동은 노동시장 약세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 이번 주 경제 데이터와 고용 보고서 발표로 모기지 금리가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CNBC 기사

## [오일]

## WSJ: Oil Drops Further as Trade War Impact Weakens Sentiment 무역전쟁 여파로 유가 추가 하락, 시장 심리 위축

- 글로벌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유가가 추가 하락하며 시장 심리가 약화되고 있다.
- 브렌트유는 1.4% 하락해 배럴당 62.34달러, WTI는 1.7% 떨어져 59.42달러를 기록했다.
- 중국의 4월 수출 주문이 급감하고 제조업 활동이 1년여 만에 가장 약세를 보였으며, 미국 소비자 신뢰도 관세 우려로 악화되었다.
- 미국 원유 재고는 지난주 380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두 유종 모두 이달 들어 14% 이상 하락했다.

WSJ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TechCrunch: Google launches AI tools for practicing languages through personalized lessons 구글, 개인화된 언어 학습 AI 도구 출시

- 구글은 개인화된 언어 학습을 지원하는 세 가지 새로운 AI 실험 도구를 출시했다.
- 첫 번째 'Tiny Lesson'은 특정 상황, 예를 들어 "여권 분실"에 필요한 어휘와 문법 팁을 제공한다.
- 두 번째 'Slang Hang'은 현지 슬랭과 구어체를 배우도록 도와 원어민 대화를 통해 자연스러운 표현을 익힐 수 있다.
- 세 번째 'Word Cam'은 주변 사물 사진을 찍어 학습 중인 언어로 단어를 라벨링하고 관련 어휘를 제공한다.
- 이 도구들은 구글 랩스를 통해 아랍어, 영어, 한국어,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로 이용 가능하다.

TechCrunch 기사

### [보고서]

## 미국 국채시장 불안에...신흥국으로 눈 돌리는 투자자들 "백악관 경제 참모, 채권시장 불안 불끄기 나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 전쟁의 여파로 미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신흥국 채권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 헤지펀드들은 최근 일본·인도 등의 주식 비중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 '셀 아메리카'...신흥국 채권 강세



- ◇ 헤지펀드들, 일본·인도 주식 매수..."현금이 왕" 관망세도
- ◇ 백악관 참모, 월가와 회동...불안 잠재우기엔 '역부족'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